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도영*

〈차 례〉

- I. 들어가기
- II. 교육과정의 말하기 교육 목표에 대한 비판적 성찰
 - 1. 국어과의 한 영역으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검토
 - 2. 학년 목표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검토
 - 3. 화법 과목으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검토
- III. 말하기 교육 목표 설정 방안
- IV. 나오기

I. 들어가기

우리의 경우, 말하기 교육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물론, 교육 과정 상으로는 말하기 교육이 '교수 요목기'부터 있어 왔지만, 실질적인 말하기 교육은 5차 국어과 교육과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5차 때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말하기·듣기'라는 교과목이 도입되어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교육 방법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는 이보다 조금 늦어서, 6차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화법'이 신설되었고,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말하기·듣기 교육 단원이 만들어졌다.

* 춘천교육대학교

시간으로 보면 본격적인 말하기 교육의 역사는 20년이 채 안 되지만,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 이제는 아무도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뿐더러, 말하기 교육 전공자도 읽기·쓰기 교육 전공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하게 적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양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말하기 교육의 발전이 곧바로 말하기 교육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말하기 교육과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보적인 발전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별개로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말하기 교육이라는 현상이 있고, 연구는 그 후에 이루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한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 배제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말하기 교육은 말하기 능력을 세분화한 기능(技能) 습득에 치중하고 있다.¹⁾ 기능 습득도 말하기 교육에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기 교육이 기능 습득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혹 우리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또한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 기능이 출중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길러야 할 인간상이 이러한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금 '말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어눌하게 말을 하지만, 진실한 말을 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우리가 길러야 할 인간인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어떠한든 이를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여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있는 인간인가? 둘 다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만 번드레하게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면,

1) 다 알다시피 기능(技能) 위주의 언어 교육은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부분적 능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기능 위주의 언어 교육은 언어 사용자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인지주의 언어 교육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된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시작된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말하기 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론의 타당성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적 타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도 기능 위주의 교육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패러다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능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인간성의 문제는 도덕 교육이나 윤리 교육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말하기 교육은 더욱더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말하기 역시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이므로 말하기 교육에서 인간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개인적인 말하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말하기 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말하기와 관련이 깊으며,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 없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사고력 신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나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말하기를 등한시할 염려가 있다. 말하기 교육 내용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말하기의 심리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말하기의 도구적인 성격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학생들에게 말하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 교섭²⁾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말하기 교육을 쓰기 교육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³⁾ 현재의 말하기 교과서를 보면, 많은 활동이 말할 내용을 선정·조직하여 쓰게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음성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쓰기 교육에 기반을 둔 것으로⁴⁾ 우리들의 일상적인 말하기와는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말을 할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나

2) 현재의 말하기 교육 연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개념은 '상호 교섭'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철성(1999), 이주섭(2001), 한철우 외(2005) 등을 참조할 것. 하지만, 상호 교섭 이론은 이 이론을 어떻게 말하기 교육에 끌어들이게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실천적·방법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는 말하기 교육의 편리성에 근거한 것으로, 쓰기 교육 방법의 원용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말하기 교육 방법이 없다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4) 이는 말하기와 쓰기가 인지적 과정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말하기 교육의 쓰기 교육화로 인해 학생들은 말하기에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말하기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하고, 말하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한다. 공식적인 말하기와 비공식적인 말하기의 균형 있는 교육과, 쓰기 교육과는 다른 말하기 교육 나름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 부재를 그 한 원인으로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교육은 목적 지향적인 행위이다. 이 점에서 말하기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말하기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과정을 입안하는 사람,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모두 별 의식이 없다. 이러한 목표 부재 의식⁵⁾은 그대로 말하기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에 근거하여 평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말하기 수업이 발표 수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풍토도 여기에 기인한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합의된 말하기 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설정이 위에서 언급한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정에 나타난 말하기 교육 목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5) 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목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목표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목표 진술이 말하기 교육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목표 의식 부재'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이다.

II. 교육과정의 말하기 교육 목표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교육과정에 나타난 말하기 교육 목표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는 무엇을 '목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목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말의 뜻이 모두 한결 같지는 않다. 쓰는 사람에 따라, 사용 맥락에 따라 목표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Elliot W. Eisner(1991)는 aims, goals, objectives를 구분하여 목적과 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aims는 교육에 대하여 어떤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밝히는 일반적인 선언이며, aims에는 한 지역 사회나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나타나 있다. 반면에, goals는 aims와 objectives의 중간에 위치한 어떤 의도를 선언하는 것으로, 어떤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따르는 지향점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goals는 예상되는 결과에 중점을 두며, 교육과정 설계자에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택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objectives는 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출발점과 도달점에서의 행동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objectives의 특징이며, 이들의 관계는 aims에서 goals가 도출되고 goals에서 objectives가 도출된다.

이와는 달리, Ronald V. White(1988)는 goals를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교육이란 제도적 실천 전체를 포괄하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objectives를 특정 교과목을 통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획득되는 것으로, aims를 아주 구체적인 결과로서 단 기간에 걸쳐 획득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이러한 아이즈너와 화이트의 견해는 각각 김창원(1992)과 김상옥(1996)에 수용되어, 김창원(1992)에서는 '교육을 수행하는 근거나 이유 혹은 중요성에 해당하는 목적(aims, goals)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상태

6) '김상옥(1996: 6)'에서 재인용.

혹은 도달한 상태에 해당하는 목표(objectives)'로, 김상옥(1996)에서는 '교육과정적 층위인 이념(goals)과 교과목의 층위인 목표(objectives), 교실 수업의 층위인 내용(aims)'으로 교육의 층위를 구분하고 있다.

위의 견해들을 받아들이는다면, 말하기 교육에서 설정할 수 있는 층위는 '이념, 목적, 목표, 내용' 네 가지가 된다. 이 중 '이념'과 '목적'은 성격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교육의 층위는 세 가지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온당할 듯싶다. 용어의 문제는 김상옥(1996: 7)이 지적한 대로, "목적과 목표의 개념이 지나치게 일상적인 어법에 침윤한 나머지, 이들 두 용어 사이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1차 교육과정 이후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목적'보다는 '목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이념'은 그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이므로, '목표'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교육은 어찌 됐건 이상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하므로, '이념'과 '목표'를 변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목표를 둘러싼 용어 문제는 '목표'와 '내용'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기 교육의 목표, 내용에 담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변별하고 관련지을 것인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⁷⁾

- 말하기 교육의 목표: 말하기 교육을 수행하는 이유 및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방향성에 근거한 말하기 교육 고유의 지향점
- 말하기 교육의 내용: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제로 갖게 되는 구체적인 능력(지식, 기능, 전략, 태도 등)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말하기 교육 목표를

7) 본고의 관심은 말하기 교육의 일반 목표이므로, 교과서(교재)나 수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 진술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교과서(교재)나 수업에서 활용하는 목표는 대부분이 교육 내용 습득과 관련이 있어서 그러한 목표들은 말하기의 일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

1. 국어과의 한 영역으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검토

우리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영역’⁹⁾의 목표를 명시한 적이 거의 없다.¹⁰⁾ 특히, ‘말하기·듣기·읽기·쓰기’가 그렇다. 국어지식(문법)과 문법은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한 적은 있지만,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목표는 언어 사용 능력 또는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 뭉뚱그려져 있어 그 목표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연역적 사고에 기댄 것으로, 일단 상위의 교육 목표가 정해지면 그 하위의 목표는 자동적으로 도출된다는 견해를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말하기 교육의 목표는 자동적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말하기의 원리와 작용 양상 익히기,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말하는 능력 기르기’가 된다.

이러한 목표 진술 방식은 국어과 교육의 통일성 꾀할 수 있고, 교육 목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말하기 교육 목표 논의의 대다수가 이러한 진술 방식과 관점

8) 주된 검토 대상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교육 목표이지만, 검토 과정에서 말하기 교육 목표를 연구 주제로 다룬 몇몇의 논문과 책도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상 ‘국어과의 한 영역으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학년 목표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화법 과목으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9)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하나인 ‘화법’은 제외된 것이다. 이는 ‘화법’이 ‘영역’이 아니라 ‘과목 명’임을 반영한 것이다. 화법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이다.

10) 1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명시한 경우가 있다.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1.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2. 자기가 한 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3.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류성기(2003: 13-58)이다. 류성기(2003: 13-58)는 말하기 듣기의 가치를 ‘의사소통의 가치, 사고 형성의 가치, 인간 관계 형성의 가치, 언어 생활 문화 형성의 가치, 언어 문화 전승의 가치’ 다섯 가지로 보고, 말하기 듣기 교육 목적을 ‘우리나라 교육 목적,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제7차 국어과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출하였다.

- (1)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말하기 듣기를 한다.
- (2)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말하기 듣기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말하기 듣기 현상을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 (4) 말하기 듣기 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각 영역 교유의 목표 논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각 영역의 목표 논의가 많지 않고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한 것도 대부분 이에 연유한다. 또한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의 총합임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도 그리 설득력이 없으며, 우리나라 교육 목적, 국어과 교육의 성격, 목표 등이 바뀔 때마다 말하기 교육의 목표도 계속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¹¹⁾ 이 점에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진술은 귀납적인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즉, 각 영역의 교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의 전체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11) 이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예를 들면 교육법에 나와 있는 ‘홍익인간’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말하기 교육의 결과로 ‘홍익인간’을 내세울 수 있고, 이와 관련지어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전면에 부각시키면 말하기 교육의 특성이 무색하게 되고, 말하기 교육은 늘 우리나라 교육법이나 교육 전체 목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말하기 교육 목표 논의는 우리나라 교육법이나 교육 전체 목표 심지어는 국어과 교육 전체 목표와도 무관하게 말하기 교육의 교유 목표가 항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2. 학년 목표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검토

교육과정에서 ‘영역’의 목표를 제시한 적은 없지만, 학년 목표를 통해 말하기 목표를 학년별로 제시한 경우는 많이 있어 왔다.¹²⁾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³⁾

- 초등학교 1, 2학년: 즐겨 참여하여 바른 태도로 말하게 한다.
- 초등학교 3, 4학년: 내용의 차례를 생각하며 정확하게 말하게 한다.
- 초등학교 5, 6학년: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말한다.
- 중학교 1학년: 바른 태도로 분명히 말하게 한다.
- 중학교 2학년: 필요한 자료를 찾아 차례를 짜서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하게 한다.
- 중학교 3학년: 목적과 상황에 맞게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말하게 한다.
- 고등학교: 목적, 대상, 상황에 맞게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말하게 한다.

위의 목표들은 앞에서 언급한 ‘목표’와 ‘내용’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목표라기보다는 내용에 더 가깝다. 즉, 이러한 목표들은 말하기 교육의 지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능력임을 더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5차 때의 이러한 목표들은 6, 7차에 와서는 거의 모두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며, 5차 이후로는 이러한 목표 제시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말하기 교육 목표 논의 중에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논의 역시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교육 목표와 내용의 관계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특정 시기 교육과정 상의 독특한 목표

12) 주로 2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가 그러했다.

13) 다음의 예는 5차 때 것이다. 5차 것을 선택한 이유는 5차의 진술 방식이 이전에 비해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 급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화법 과목으로서의 말하기 교육 목표 검토

교육과정 상에서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화법’이다. 6차 때부터 신설된 화법 과목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6차 고등학교 화법 과목 교육 목표〉

- 가.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 나. 대상, 목적, 상황을 고려하여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신장하게 한다.
- 다. 화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7차 고등학교 화법 과목 교육 목표〉

- 화법의 이론을 이해하고, 말하고 듣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본질을 안다.
- 나. 화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화법 문화를 형성한다.
- 다. 목적, 대상, 내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라. 음성 언어로 사상과 정서를 즐겨 표현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위의 목표들은 앞에서 제시한 5차 때의 학급별 학년 목표 제시보다 체계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역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또는 능력), 태도’를 즉, 화법 교육의 내용을 좀더 일반화시킨 것이다. 다만, 이 중에서 7차의 ‘바람직한 화법 문화 형성’은 화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진술에 가깝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2001: 124)에서도 다음과 같은 진술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화법’ 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중추적 기능인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능과 태도 및 습관의 형성’에서 나아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말의 힘’을 알게 하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품성을 다듬으며, 나아가 겨레 전체 동아리가 하나 됨을 이루고 독특한 겨레 문화를 창조하여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즉, 우리 조상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말과 힘’, ‘말과 품성’, ‘말과 겨레’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화법 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익혀 서구 중심의 ‘현대 화법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 진술 방식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 전체 목표 진술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목표 진술 방식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현섭 외(1999: 224-228)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고전적 목표(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발화공동체의 언어규범, 문화전승과 창조, 인격 형성)와 현실적 목표(인지적 관점에서 적절성, 정상성, 정확성, 유창성)로 나누고, 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목표로 구체화하고 있다.

- 담화 문화의 고양
- 표현력 개발
- 담화 유형과 방법 터득
- 태도와 습관 형성

김재봉(2003: 88)도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토대로, 말하기 듣기의 목표를 기술한다면,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신장과 태도 함양을 위해 ‘말하기 듣기에 대한 지식, 기능이나 전략을 익혀 효과적으로 표현(이해) · 전달(수용) · 반응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적극적인 말하기(듣기) 태도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하기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거시적 차원: 인격 형성이나 담화 문화의 고양(정의적 측면)
- 미시적 차원: 표현력(이해력)을 개발하고, 담화 · 텍스트의 유형을 알고

이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지식, 기능이나 전략 차원)

하지만, 위와 같은 목표 진술 방식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는 목표를 가르쳐야 할 내용의 성격, 즉 지식이나, 기능(또는 전략)이나, 태도나(또는 인지적 영역이나 정의적 영역이나)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이며, 둘째는 ‘말하기(담화, 화법) 문화 형성’을 교육 목표로 삼으면서 이를 가르쳐야 할 내용의 성격에 따른 목표 진술과 대등하게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나머지 하나는 ‘말하기(담화, 화법) 문화 형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첫째 문제인 내용의 성격에 따른 목표 진술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우거나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일반화시킨 것이므로 목표 진술이라 하기 어렵다. 말하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게 지식, 기능, 전략, 태도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¹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차원인 ‘말하기(담화, 화법) 문화 형성’과 나란히 놓을 수 없다. 김재봉(2003: 88)의 논의는 이 문제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변별하여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슷한 논의로는 이창덕(2003: 58)을 들 수 있다. 이창덕(2003: 58)은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김재봉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주종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어 말하기·듣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말하기·듣기 능력(인지 심리 영역<지식과 태도>¹⁵⁾, 언어 영역<표현과 이해>, 인간 관계 영역<의도달성과 관계증진>의 능력 - 각 영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14) 이에 대한 지적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공표된 이후로 많이 있어 왔다.

15) 〈 〉 안에 있는 내용은 이창덕(2003: 55-57)을 참고하여 필자가 써 넣은 것임.

하지만 이러한 관계 설정은 주종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 즉, 말하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르치거나 배우기만 하면, 말하기 문화는 거의 자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내용과 목표를 대등하게 놓은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셋째 문제인 ‘말하기(담화, 화법) 문화 형성’은 그 자체로는 말하기 교육 고유의 지향점일 수 있으므로 목표 진술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병곤(2005: 4)의 지적대로 ‘말하기(담화, 화법) 문화 형성’은 추상의 수준이 너무 높고 말하기 교육의 본질을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추상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 목표로서의 ‘말하기(담화, 화법) 문화 형성’은 그 실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지 않는 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¹⁶⁾

위와 같은 교육과정 목표 진술 외에 주목할 만한 목표 논의는 전은주(1999: 153-185)이다. 전은주(1999: 153-185)는 목표를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기술’로 정의하고, 말하기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해 ‘국어 사용 능력, 국어 사용 능력으로서의 말하기 능력, 7차 국어과 교육과정상의 목표에 대한 재고, 말하기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 이상적 화자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 교육의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① 담화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다.
- ② 담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언행적 목적과 관계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③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 ④ 말하기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16) 방인태(2003: 232-235)에서는 문화 생산 화법 교육의 원리로 ‘논리성, 비판성, 창의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화법 교육의 지향점이라기보다는 교수·학습 방법의 원리에 더 가깝다.

말하기 교육 목표 설정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전은주(1999: 153-185)의 논의는 말하기 교육 목표 설정이 어렵고 복잡한 일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말하기 교육 목표를 설정한 것 역시 주목에 값한다. 하지만, 전은주(1999: 153-185)의 논의도 결과적으로 보면 목표와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여러 고려 사항 중에서 목표를 하나씩 추출하고 집대성하여 목표 제시의 비체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하기 교육 목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위 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말하기 교육 고유의 목표 도출 실패

둘째, 목표와 내용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목표와 내용의 혼재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는 목표 진술(예: 바람직한 말하기 문화 형성 등)

III. 말하기 교육 목표 설정 방안

그러면 말하기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본고는 말하기 교육 고유의 목표가 항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므로, 말하기 교육 목표 추출의 시발을 말하기의 본질에서 찾고자 한다. 즉, 말하기 교육의 목표는 말하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격에서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¹⁷⁾

17) 말하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음은 박창균 외(2001: 30-32)를 참조할 것. 박창균 외(2001: 30-32)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전통) 언어학적 관점: 정확성, 똑똑하고 분명한 발음과 속도,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수사학적 관점: 독창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말을 하는 것

말하기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다. 옛날부터 말하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어느 것도 말하기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말하기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하나의 접근 방법들은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교육에서는 '어느 관점이 옳은가'보다 '어느 관점이 말하기 교육에 유용한가'에 초점을 맞춰 여러 관점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의 본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말하기의 구두 언어성이다. 말하기의 본질로 이를 지적하고 있는 논의는 매우 많지만, 이를 말하기 교육에 제대로 접목시키고 있는 논의는 드물다.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와는 달리 우리 삶에 필수적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글을 읽거나 쓰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¹⁸⁾ 말하고 듣지 않고는 삶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언어는 Walter J. Ong(1995: 60-91)이 지적한 대로 '인간의 생활 세계에 밀착되어, 상황하거나 다변적이고,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고,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 이입적 또는 참여적이고, 추상적이기보다는 상황 의존적이고, 종속적이기보다는 첨가적이고, 분석적이기보다는 집합적'이다.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말하기 교육은 쓰기 교육을 닮아 가고 있어, 이러한 말하기의 특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만들어 낸 삶의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¹⁹⁾

-인지 심리학적 관점: 유연성. 말할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성하여 말하는 것

-의사소통 관점: 진실성.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거짓없이 말하는 것

-화용론적 관점: 협력성. 말하기의 목적을 생각하며 화자와 청자가 협력적으로 말하는 것

18) 문맹자들을 떠올리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이다.

19) 이런 점에서 인간 중심의 화법 교육을 주장한 임철성(1999)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화법 교육의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창덕 외(1999)의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둘째, 말하기는 표현 과정이면서 이해 과정이다. 심리적 과정으로 보면 말하기는 분명 표현 과정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자기 자신도 듣는다. 즉, 표현과 이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자기가 말한 것을 항상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 몸짓, 지식 여부, 처한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 역시 이해 과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말하기와 듣기를 통합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말하기와 듣기의 통합 이유를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은 들어야 한다는 식의 화자와 청자의 쌍방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는데, 실은 말하기는, 상대방이 듣던 안 듣던, 그 자체가 표현이면서 이해인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말하기 교육은 말하기를 표현으로만 여겨 말하기가 지니고 있는 이해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말하기의 이해적 측면을 말하기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고, 표현력 개발만을 말하기 교육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셋째, 말하기는 개인적 행위이면서 사회적 행위이다. 말하기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각각의 주체는 또 다른 언어 사용의 주체와 만날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기가 개인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을 잘 하려면 사고력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말하기를 관찰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에게나 막 하지 않는다. 항상 상대방과의 특정 관계 속에서 말을 하게 된다. 즉,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상황에 따라 말할 내용의 선정, 조직,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다. 말하기는 이처럼 역동적인 것이다. 요즈음 말하기 이론서를 보면, 말하기를 '상호 교섭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하기의 역동성이 상호 교섭 작용인 것이다. 작금의 말하기 교육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행위로서의 말하기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행위로서의 말하기는 소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내용 선정과 조직을 잘 했다고 해서 항상 말하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말하기는 도구이면서 문화이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집, 학교, 직장 어느 곳에 있든 말을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말을 하더라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 때에 제대로 얻으려면 말을 잘 해야 한다. 현재의 말하기 교육도 이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친교의 말하기, 정서 표현의 말하기' 등 말하기의 여러 목적에 맞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을 통해 꼭 얻는 것이 말하기 교육의 최대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찝찝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얻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말하기 방식과 관련이 많은데, 대부분의 언어 공동체는,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이와 관련된 권고 사항이나 금기 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말하기가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라면, 응당 말하기 교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 즉, 말하기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기가 속한 사회의 말하기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토의 토론 문화, 유머 문화, 수평적 말하기 문화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도 이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기 교육의 목표는 위에 제시한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말하기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²⁰⁾

첫 번째는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말하기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의 말하기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만을 말하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의 말하기 교육으로도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말하기가 진단 및 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말하기이다. 이러한 차원의 말하기가 지향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일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말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어떠한 문제이든 폭력이나 기타 물리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도 한다.

세 번째는 윤리적 차원의 말하기²¹⁾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향해 왔던 말하기 방식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조심하고 등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말하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말과 행동의 일치'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진부하다 할 수 있지만, 말하기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고 남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수단인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덕목의 필요성에 대해 수긍이 갈 것이다. 말하

20) 다음에 제시된 목표는 교육과정 상의 목표 진술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추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들(학교별 목표, 학년 목표, 수업 목표 등)은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목표들을 바탕으로 도출해야 하는데, 이는 말하기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이 깊다.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앞에서 언급한 말하기의 본질을 일대일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 말하기의 본질이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특정 성격을 부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도출한 것이다.

21) 어떤 종류의 말하기이든 화자-청자 간의 관계를 도외시킬 수 없으므로, 윤리 문제는 말하기 교육의 필수 사항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seph A. Devito(2003: 11)를 참조할 것.

기는 말하는 사람과 댈레야 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하기도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요즈음처럼 말만 난무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덕목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어느 때보다도 자기 주장이 강한 요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술적(오락적) 차원의 말하기²²⁾로서, 말하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가끔 말을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가 있다. 또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박장대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말하기는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교육적으로는 별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긴장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시키는 등 우리들에게 적잖은 이득을 준다. 따라서 '유머, 농담, 욕, 수수께끼, 언어 유희'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말하기의 즐거움을 떼뻗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나오기

교육에서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목표가 정립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말하기 교육은 이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했다. 그러다 보니, 말하기 교육은 그 자체의 교육 논리보다는 다른 교육의 논리를 빌어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말하기 교육 목표 설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발점이라 생각되며, 기존의 말하기 교육 목표 논의가 보여 준 '상위 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말하기 교육 고유의 목표 도출 실패, 목표와 내용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목표와 내용의 혼재, 구체적인 목표를 확보

22) 이는 말하기의 구두 언어성과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목표이다.

하지 못한 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는 목표 진술(예: 바람직한 말하기 문화 형성 등)' 등을 극복하고자 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6. 2. 26. 투고되었으며, 2006. 3.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② 국어 -*, 대한교과서.
- 김상욱(1996), *문학교육의 이념과 목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학술발표회 자료집 2.
- 김재봉(2003), *초등 말하기·듣기 교육론*, 교육과학사.
- 김창원(1992), *문학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원리 - 목표 및 내용의 조직*, 국어교육 77·78.
- 류성기(2003), *초등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 민병곤(2005), *화법 교육의 이론화 방향 탐색*, 제48회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문.
- 박창균·김현아·이미숙·제혜숙(2001), *말하기 교육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15회 경인초 등국어교육학회 연구 발표 자료집.
- 방인태(2003), *국어과 화법 교육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 임철성(1999), *국어 화법의 성격 고찰*, 화법연구 1, 한국 화법학회.
- 이주섭(2001),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듣기·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8집, 한국초 등국어교육학회.
- 이창덕·임철성·원진숙·심영택(1999), *삶과 화법*, 박이정.
- 이창덕(2003), *음성언어 생태와 듣기·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2집, 한국초등국어 교육학회.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천경록(1997), *말하기·듣기의 교육 내용 구성과 교재 개발*, 연구보고서 97-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최현섭·최명환·노명완·신현재·박인기·김창원·최영환(1999), *국어교육학개론* 제2판, 삼 지원.
- 한철우·전은주·김명순·박영민(2005),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 Elliot W. Eisner(1991), *이해명 옮김, 교육적 상상력*, 단국대학교 출판부.
- Joseph A. Devito(2003), *Human Communication The Basic Course*(Ninth Edition), Allyn and Bacon.
- Walter J. Ong(1995),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문예출판사.

<초록>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도영

현재 우리의 말하기 교육은 '인간 배제, 개인적 말하기에 치중, 말하기 교육의 쓰기 교육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 부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말하기 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들은 '첫째, 상위 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말하기 교육 고유의 목표 도출 실패. 둘째, 목표와 내용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목표와 내용의 혼재.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는 목표 진술.'이라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말하기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말하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격에서 추출하고자 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말하기의 고유한 특성은 '구두 언어성, 표현 과정이면서 이해 과정, 개인적 행위이면서 사회적 행위, 도구이면서 문화' 네 가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말하기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말하기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말하기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형성하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하기. 세 번째는 윤리적 차원의 말하기로, 말과 행동의 일치. 네 번째는 예술적(오락적) 차원의 말하기로, 말하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

【핵심어】 말하기 교육의 목표, 말하기의 본질,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말하기, 사회·문화적 차원의 말하기, 윤리적 차원의 말하기, 예술적 차원의 말하기

<Abstract>

How to Establish Speaking Education Goals

Lee, Do-young

Now our speaking education has problems to exclude human, concentrate on private speaking, mimic writing education. These problems are caused to the absence of speaking education goals. The present study on speaking education goals are not enough to solve these problems. So how we establish speaking education goals. This study derive speaking education goals from speaking's essential characteristics as one proposal. Speaking's essential characteristics which this study suggest are 'the nature of oral language, the process simultaneously to express and understand, private and social behaviors, instrument and culture.' On the basis of these speaking's essenti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s speaking education goals as follows. First, to express one's thought accurately and effectively as individual · psychological speaking. Second, to form desirable relationship with other person and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conversations as social · cultural speaking. Third, to mate one's utterances with one's behaviors as ethic speaking. Fourth, to feel pleasure through speaking as aesthetic speaking.

[Key words] speaking education goals, speaking's essenti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 psychological speaking, social · cultural speaking, ethic speaking, aesthetic speaking